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

함 이기보까?



손흥민, BTS, 오징어게임에 이어 부산이 대한민국을 띄워보겠습니다  
치열하게 유치경쟁 중인 세계 유력도시 모스크바, 로마, 오데사, 리야드를 이기고  
지구촌 3대이벤트를 대한민국이 완성할 수 있도록- 부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량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부산 유치해”를 외쳐주세요!**

유치 예상효과	개최기간 2030. 5월~10월	개최장소 부산북항일원	참가규모 약 200개국 5,050만명	경제적 파급 효과 61조원	일자리창출 50만명
---------	----------------------	----------------	-------------------------	-------------------	---------------



부산체육  
2022 JANUARY  
VOL. 40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 VOL. 40

2022 JANUARY

## 신년사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

## 이슈 앤 포커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경기대회,  
외교적 보이콧 딛고 성공적 개최로

#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 More Deeply

- 04 신년사**  
-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
- 08 비전과 목표&중점 추진사업 안내**  
희망을 향한 힘찬 날갯짓  
2022년에도 체육인을 응원합니다!
- 14 부산스포츠 히어로**  
유일한 금지로 명예를 지키다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



## More Broadly

- 18 스페셜 리포트**  
오징어게임 시대의 이인삼각 달리기
- 22 스포츠 in 과학**  
스포츠 동작을 분석하는 이유와 방법
- 26 구·군체육회를 가다**  
강서구체육회
- 30 이슈 앤 포커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경기대회,  
외교적 보이콧 받고 성공적 개최로

## More Pleasantly

- 34 체육회 사무처를 소개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호랑이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리다!
- 40 스포츠 이야기 Y**  
열정의 코트 위에서 펼치는 한 판 승부  
농구의 역사를 말하다
- 44 키워드가 있는 건강상식**  
성장기 운동선수  
충분한 에너지 섭취는 필수!

## More Closely

- 48 부산의 체육 관련학과·대학원 소식**
- 50 BSC 뉴스**
- 53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 54 구·군체육회**
- 56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 58 회원종목단체**
- 59 부산공공스포츠클럽**



발행일 2022년 1월 21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40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김동준  
 편집·취재 성기환,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지환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디자인 디자인대훈(T. 051-898-0330)



Instagram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존경하는 부산체육 가족 및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부산체육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체육인 모두가 역경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대회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많은 대회가 잇달아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성과는 얻을 수 없었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훈련에 매진하며 새해를 준비하신 만큼 이번 해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아무쪼록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여 마음껏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와 열정으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21년은 부산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였고, 그에 따른 변화도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지금까지 준비해 온 계획과 체육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튼튼한 체육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으로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정책 목표로 세워 4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생력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체육 시스템 강화 선순환 프로세스 마련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택트 스포츠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교류를 통해 우리 체육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체육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시는 일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체육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壬寅年



###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진취적인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되기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시·도체육회 지원을 통해 지역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입니다.

먼저,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부산체육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부·울·경 메가스포츠한마당, 시민체육대회, 전국체전 대비 종목별 예선대회 개최 등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전반에 걸쳐 시민들께 체육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체육> 소식지를 통해 지역 체육회 근황을 소개하고 체육현안에 대한 학계 및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희 공단 또한 시·도체육회 지원을 통해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역 스포츠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과 홍보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에도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매진할 것입니다.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의 해'로 도전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해입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부산지역 스포츠에 새로운 기풍을 진작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전함으로써 시민 화합에 앞장설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체육 가족 여러분 호랑이 기운 받아 가정과 직장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는 국제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고,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행정조직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체육 가족 및 부산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상징한 영물인 강인한 기백이 넘치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체육 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은 위기 속에서 스포츠가 점점 깨어나는 해로,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코로나19의 상황을 딛고 새로운 스포츠의 지표를 이정표로 삼아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다가오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를 시작으로 9월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등 세계 스포츠 인을 하나로 모으는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10월 서울에서 열릴 국제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준비에도 역량을 모아 전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연말에 치러질 민선 2기 지방체육회장단 선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지방체육이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포츠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문선수의 수 급감, 기초종목의 국제경쟁력 하락, 스포츠 인프라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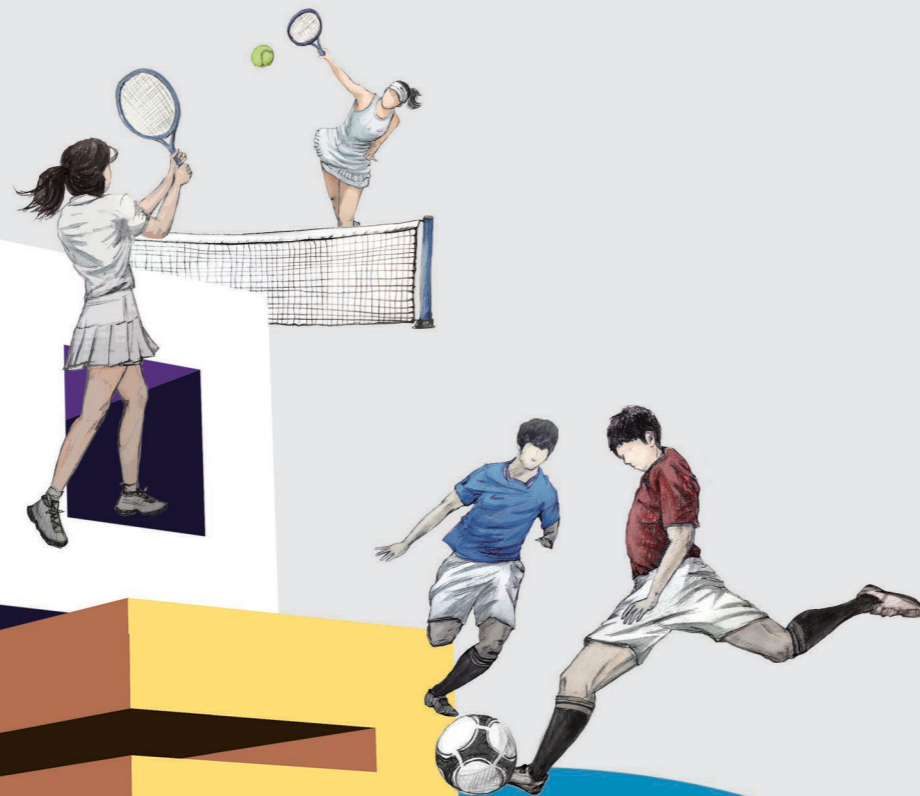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체육 정책 전달체계의 변화인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정률배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전국의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 체육 유관단체 임직원 등 2백 2십만 명의 지지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부산체육 가족 여러분께서도 큰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미래지향적인 스포츠행정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직속의 국가체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스포츠를 통해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며 많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던 부산체육 가족 및 부산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산체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및 체육 가족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향한 힘찬 날갯짓  
2022년에도  
체육인을 응원합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비전과 목표 & 중점 추진사업 안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수많은 스포츠 행사가 취소됐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국체육대회는 고등부만 일부 개최됐으며 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의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오랜 시간 땀 흘려 준비한 체육인들은 그간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22년에도 체육인들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비전과 목표를 들어본다.



### 정책목표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으로  
시민이 행복한 부산

### 추진전략

- 자생력 확보와 체육회 위상 정립
- 전문체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
- 국제스포츠 도시 위상 강화



#### 자생력 확보와 체육회 위상 정립

- 01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 02 스포츠인권 강화
- 03 회원단체 역량 강화



#### 전문체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01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 02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
- 03 종합체육대회 참가 및 지역체육 활성화

### 중점 추진과제

####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

- 01 생애주기 체육활동 지원
- 02 맞춤형 스포츠복지 서비스 활성화
- 03 지역체육단체 육성·지원 체계 강화



#### 국제스포츠 도시 위상 강화

- 01 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
- 02 스포츠 교류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 03 부산체육 홍보 활성화





GOAL 01

# 자생력 확보와 체육회 위상 정립

## 1

###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체육회의 유·무형 자산 및 지식재산권 마케팅 활동을 통해 부산지역 내 20여 개 기업 후원 유치 및 연계를 하고, 정기 후원을 바탕으로 재정 자립에 기틀을 마련하여 부산체육의 발전과 진흥사업에 기여한다.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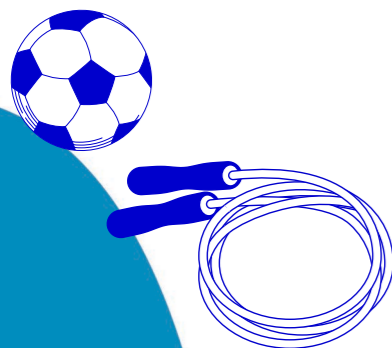
### 스포츠인권 강화

스포츠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행위의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적발 시 강력한 징계 조치로 체육계 비리행위를 추방하고, 스포츠 4대 악(성)폭력, 승부 조작,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없는 청렴한 체육환경 조성을 통해 반부패 청렴문화의 확산 및 투명한 스포츠 생태계를 확립한다.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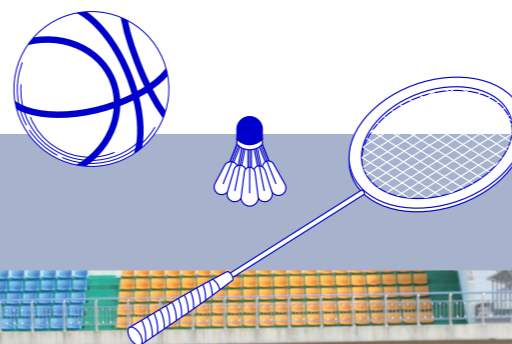
### 회원단체 역량 강화

회원종목단체 운영에 대한 청렴도 제고와 행정력 향상을 위해 총 59개 정회원 종목단체에 대해 내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회원단체 직무연수를 통해 행정 실무 교육과 스포츠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을 하고, 행정력 강화 및 회원단체 간 정보교류의 장을 열어 실무자의 능력과 행정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GOAL 02

# 전문체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1

###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참여 기회 제공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학교(팀)에게는 해당 종목의 지도자를 파견하여 비인기 종목의 불참을 해소하고, 학교체육의 기초기반 강화를 노린다. 꿈나무 육성지원으로 우수선수에게 장학금과 훈련용품 등을 지원하고 선진국형 체육문화의 저변을 확대하여 청소년 체력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2

###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

올바른 스포츠 가치를 세우고 건실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자 상반기에 부산광역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권교육, 청탁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인정보보호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지도자와 선수별 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매년 선수단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대상으로 고충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하며 선수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힘쓰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선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신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부산 출신의 우수선수 및 유망선수를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 3

### 종합체육대회 참가 및 지역체육 활성화

종합 실내훈련장 운영 및 선수 전용훈련장 지원을 통해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및 대회 준비를 한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전지 훈련비를 지급하고 전력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체육대회에 활발히 참가해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부산시민의 생활체육에 관심을 높여 건강증진 도모에 힘쓸 것이다.





### GOAL 03

##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

### 1

#### 생애주기 체육활동 지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부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여 사회적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운동 참여 환경을 조성해 회원종목단체별 대회 참여 유도 및 전통 종목인 씨름 활성화, 소외 계층 및 여성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간다.



### 2

#### 맞춤형 스포츠복지 서비스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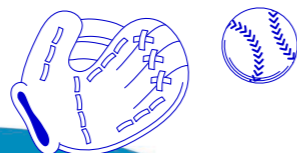
공공체육시설 수탁운영으로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1인 1스포츠의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가 One Stop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센터시설에 한해 헬스 프로그램 등록 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부산체육진흥 세미나를 개최해 부산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부산체육 이슈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메가시티 조성의 일환인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개최를 통해 지역 간 스포츠 교류를 이어가고, 찾아가는 스포츠 복지 영상 중계와 제작을 통해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교육으로 양질의 홈트레이닝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 3

#### 지역체육단체 육성·지원 체계 강화

16개 구·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바탕으로 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구·군체육회에 대한 설문과 개별면담을 실시해 인권실태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간다.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 지도와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고, 수준 높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 GOAL 04

## 국제스포츠 도시 위상 강화

### 1

#### 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말레이시아 국립체육회와 스포츠 교류 방안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지도자 파견 시기 논의를 통해 꾸준히 교류하고 상호 우호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주변 국가와 신규 스포츠 교류를 위해 노력하여 말레이시아의 강세 종목인 스쿼시, 배드민턴 등의 기술 도입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한다.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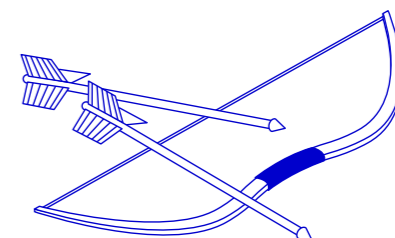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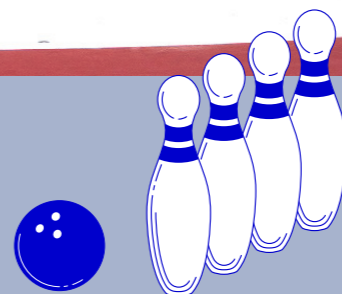
#### 스포츠 교류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국제친선교류를 통해 종목 간 스포츠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선진형 체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회원종목단체 및 부산-후쿠오카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를 통해 동호인 스포츠 클럽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 교환 활동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 3

#### 부산체육 홍보 활성화

부산체육 소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체육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인지도와 체육에 대한 부산시민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된 만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끄는 콘텐츠 제작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한다. 부산체육 정기간행물과 부산체육 특색 개편을 통해 더욱더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며, 이는 부산체육인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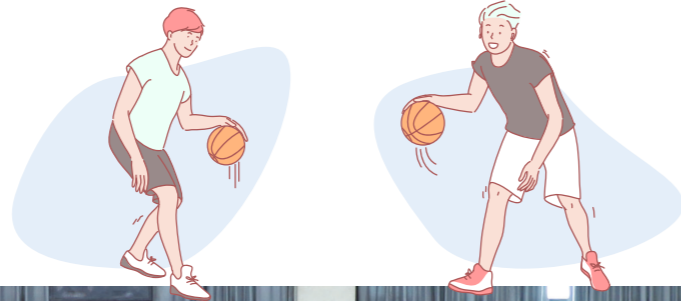


# 유일한 공지로 명예를 지키다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는 1966년 창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농구명문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오랜 세월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농구 하면 동주, 동주 하면 농구가 될 수 있게 오늘도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를 찾아가 보았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 부산 유일의 여자고등학교 농구부

농구는 스피드한 경기 진행과 다양한 전술로 한 순간도 눈을 땔 수 없게 만든다. 좁은 코트에서 드리블(Dribble)과 패스(Pass), 슈트(Shoot) 등을 통해 상대방의 골대에 많은 골을 넣어야 승리하는 경기인 만큼 신체 접촉도 많다.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 공은 크고 골망은 작아서 많은 기술이 필요해요. 순간적으로 공격과 수비가 바뀌기 때문에 한시라도 방심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공격권이 바뀌기도 하죠.”

신체조건을 비롯해 정확성과 민첩성, 점프력, 순발력까지 갖추어야 하다 보니 훈련은 체력과 전술적인 부분이 같이 진행된다. 특히 체력을 키우고,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공 연결, 팀 전술과 조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저희 농구부는 부산에서 유일한 여자고등학교 농구부입니다. 그만큼 자부심도 있지만 다른 팀들과 연습 경기를 많이 할 수 없다는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타 시도 전지훈련을 통해 보완하고 있고, 팀워크를 강조하며 경기력을 높이고 있어요.”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는 허만덕 감독과 이진희 코치가 이끌고 있다. 허만덕 감독은 선수로 활동하다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50여 년간 농구인생을 살고 있다.

“저도 농구선수로 활동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규칙이나 인성 교육에 있어서는 엄격한 편인데 늘 즐겁게 연습하고 따라와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진희 코치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강요와 억압보다는 공부하는 학생선수로 현재와 미래를 구상할 수 있게 지도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인성을 중시하는 허만덕 감독과 이진희 코치의 지도 방식은 성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한 농구부를 만들었다.

# Basketball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 선배와 후배가 만드는 선순환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가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데에는 부산광역시 체육회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구부에서 포워드(Forward)를 맡고 있는 2학년 이동현 선수와 센터(Center)를 맡고 있는 1학년 김도연 선수도 팀의 가장 큰 장점으로 밝은 분위기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단합력을 꼽았다.

이동현 선수는 중학교 때부터 함께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며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팀 연습 때는 더욱 집중한다고 했다. 김도연 선수는 지난여름 수박과 얼음으로 더위를 날리며 연습했던 때가 기억에 남는다며 힘들 때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서로를 향한 남다른 동료애는 쟁쟁한 선배들과 화려한 수상의 비결이기도 하다. 동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 중에는 대한농구협회 천은숙 심판, 박정은 농구감독, 강아정 선수 등이 있으며 김화순 전 농구선수는 모교에서 감독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20년에는 안혜지 선수가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을 격려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농구부가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만 해도 2022년 한국 여자농구연맹(WKBL) 신인 선발회에서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단 방보람 선수, KB스타즈 여자프로농구단 이해주 선수, 김천시청 여자농구단 정민지 선수까지 3명이 입단하는 성과를 냈어요.”

선배들의 모습이 후배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후배들의 응원이 선배들에게 자극이 되는 선순환이 아닐 수 없다. 그 선순환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서로를 향한 남다른 동료애는 쟁쟁한 선배들과 화려한 수상의 비결이기도 하다.”



### 구영순 교장 선생님 인터뷰(MINI INTERVIEW)

동주여자고등학교는 꿈과 역량을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융합인재 육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의 농구부는 학교의 자라이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노력하는 농구부 선수들의 모습은 다른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우리 농구부 선수들의 노력과 맘이 빛을 발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부산을 넘어 세계 농구를 이끄는 동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연습은 시합같이, 시합은 연습같이

동주여자고등학교가 농구부의 입지뿐만 아니라 훌륭한 선수 육성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조기에 선수를 발굴하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체격 조건이 좋거나, 재능을 보이는 선수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과정을 거쳐 기량을 발전시키고, 고등학교에 와서 결과로 만들어지도록 했죠. 올해도 훈련 계획을 토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2022년은 지난해 동주여자중학교에서 전국 정상권을 유지하며 좋은 성적을 거둔 신입생들이 합류해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기존 선수들과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전략적인 훈련도 도입했다.

“부산에서 유일한 여자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라는 긍지를 가지고 연습은 시합같이, 시합은 연습같이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서로 믿고 격려하며 열심히 훈련에 임해주었으면 좋겠고, 다치지 말고 2022년을 보냈으면 합니다.”

동주여자고등학교 농구부가 지켜온 명예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 노력이 결실로 빛어지고 부산체육과 여자농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염원한다.



### 주요 연혁 및 수상내역

- 1966년 부산 유일의 여자고등학교 농구부 창단
- 2006년 제38회 대통령기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 1위
- 2007년 제88회 전국체육대회 1위
- 2013년 제94회 전국체육대회 3위
- 2016년 제97회 전국체육대회 3위
- 2017년 제72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1위
- 2018년 제73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2위



허만덕 감독



이진희 코치



이동현 선수



김도연 선수

# 오징어게임 시대의 이인삼각 달리기

혼자보다 힘든 이인삼각 달리기를 시작할 때



글\_ 동서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임백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두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유의 시대에 부산체육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시간을 고뇌하고 고뇌한 끝에 4가지 이슈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첫 번째 제언

### 피트니스 트렌드를 분석하라 지속발전 가능한 체육 분야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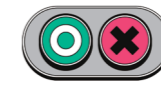
미국대학스포츠의학회(ACSM's,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에서는 매년 유행할 피트니스 트렌드(Fitness Trends) Top20을 분석하여 발표하는데, 2007년부터 2015년도 까지 TOP10에는 체육교육, 어린이, 노인, 근력운동이 상위에 랭크를 차지했으나 2016년부터는 웨어러블, 고강도 트레이닝(HITT 또는 크로스핏 등), 퍼스널 트레이닝(PT), 그룹(GX)운동이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1년까지의 피트니스 트렌드의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트레이닝(Online Training)과 버추얼 트레이닝(Virtual Training) 등으로 조사되었고, 2022년 1위를 차지한 웨어러블 기술은 2018년(3위)과 2021년(2위)을 제외한 2016년 조사가 처음 도입된 이래 1위를 차지했다.<sup>①</sup> 이런 결과는 기존에 상상하지 않았던 접근 방식의 변화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피트니스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가 스포츠산업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① <https://journals.lww.com/acsm-healthfitness>

이러한 세계적인 피트니스 트렌드는 전 세계적인 변화이므로 우리도 이를 주목하고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피트니스 트렌드 분석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체육 분야 선도를 위한 참여형 공간 구축과 경제적 기대 창출을 위한 부산체육의 비즈니스모델(BM)개발 전담조직 설치가 요구된다. 경제성과 수익성의 균형 유지를 위해 민·관·학·산이 협력해 발맞추어 달리는 사인오각 달리기를 수행할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부산체육의 나아갈 길에 대한 첫 번째 제언은 '피트니스 트렌드를 분석하라' 그리고 '지속발전 가능한 분야를 개척하라'이다.

“ 첫 번째 제언은 '피트니스 트렌드를 분석하라' 그리고 '지속발전 가능한 분야를 개척하라'이다. ”

## 2022년 세계 피트니스 트렌드 상위 20위



순위	2022년 세계 피트니스 트렌드
1	웨어러블 기술
2	홈 운동 체육관
3	야외 활동
4	무료 웨이트가 있는 근력 훈련
5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
6	개인 교육
7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8	체중 훈련
9	온라인 라이브 및 주문형 운동 수업
10	건강/웰빙 코칭
11	노인을 위한 피트니스 프로그램
12	운동은 의학입니다
13	공인 피트니스 전문가 채용
14	기능적 피트니스 트레이닝
15	요가
16	모바일 운동 앱
17	온라인 개인 교육
18	피트니스 전문가를 위한 면허
19	라이프스타일 의학
20	그룹 운동 훈련

출처: [https://journals.lww.com/acsm-healthfitness/Fulltext/2022/01000/Worldwide\\_Survey\\_of\\_Fitness\\_Trends\\_for\\_2022.6.aspx](https://journals.lww.com/acsm-healthfitness/Fulltext/2022/01000/Worldwide_Survey_of_Fitness_Trends_for_2022.6.aspx)



TREND

## 두 번째 제언

### 스포츠가치 실천 3.0을 위한 공감형 공간 설치와 확대

스포츠가치 실천(Sports Value Education) 3.0이란 스포츠를 통해 배운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탁월함, 우정, 용기, 평화, 존중, 성실, 배려 등을 경기장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체육인이 존경 받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sup>2</sup>

스포츠가치 실천의 대표 사례로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생활 속 스포츠가치 실천' 선언식을 소개할 수 있으며, 그 시작으로 '△VeryGoodSports, 참좋은스포츠 해시태그 캠페인 △스포츠가치 실천을 위한 학교스포츠 존댓말 쓰기 운동 △스포츠가치 나눔 실천단 △스포츠가치 교육연구회(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참 좋은 스포츠 리더단(Very Good Sports Leader) △생활 속 스포츠가치 실천 공모전 등을 지속 추진하면서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다.<sup>3</sup> 부산도 공정과 균형이 강조되는 시기에 맞추어 스포츠가치 실천 선언과 더불어 스포츠가치를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감형 공간의 확대를 제안하며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스포츠가치를 가르치고 몸소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 역시 체육교육의 영역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와 교육청이 두 발을 묶고 발맞추어 달려가는 이인삼각 달리기처럼 실천과 감동이 공유되는 공감형 공간 설치와 확대를 두 번째로 제언해 본다.

## 세 번째 제언

### 건강친화적 건강가치 창출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그 한 가운데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많은 활동의 제약과 사회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다양성과 개인취향 그리고 건강이 소비의 선택기준이 되고, 기업의 경영트렌드도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 ESG경영이 주류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주목한 연구로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소비자 건강에 미치는 기업의 활동과 영향력을 평가하는 '건강가치창출지수(Health-Friendly Activity Index, HFAI)'와 '소비자건강기여척도(Contribution Assessment Tool for Consumer' Health, CATCH)'를 개발하였다. 윤영호 교수팀의 연구결과 '소비자는 건강친화적제품과 서비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심리와 기업의 경영트렌드가 건강가치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부산체육의 나아갈 길에 대한 세 번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산하 각 종목단체는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인 스포츠경기 관객, 아마추어 선수 및 동우회 회원,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건강친화적 건강가치창출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존의 스포츠이벤트를 소비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영역에서 분석하고 위에서 언급한 피트니스 트렌드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중 가장 가시적이고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부분이 건강 분야임을 공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스포츠 관련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sup>2</sup> 국제신문 스포츠에세이, 2018. 12. 27. 25면

<sup>3</sup> 이데일리, 2021. 4. 25.

## 네 번째 제언

### 시와 비대면 현장맞춤 헬스커뮤니케이션 모듈 구축

21세기 우리는 수많은 기대와 흥분으로 출발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한 혁명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는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데이터에 통합하고 O2O를 통해 우리 삶 곳곳에 모바일 헬스 케어를 구현시키고 있다. 특히, 요즘은 사회적 거리에 따른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미디어와 융합한 모바일 헬스피트니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모바일 피트니스 시장은 매년 13.8% 급성장 중이며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 18만 개 이상의 앱이 출시되고 있다.<sup>4</sup> 여기에 최근 AI(Artificial Intelligence) 역시 우리 생활영역에서 최신 스마트폰, TV, 스피커,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내재되어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와 융합한 건강 관련 캠페인과 챗봇이 각광받고 있으며 스포츠 영역에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전달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시와 ICT 융합 그리고 비대면 현장이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최근 정부 주도의 다부처 R&D 사업의 트렌드 역시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운동서비스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으며,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들이 이를 활용해 국민체육센터 등 국가자원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러한 혁명적 기술의 진보에 비해 스포츠 현장의 준비는 아직 Living Lab 수준에 일부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2022년을 시작하는 현재, 부산체육의 나아갈 길의 네 번째 제언은 스포츠 현장 곳곳에 시와 비대면 현장맞춤 헬스커뮤니케이션 모듈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구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합적 교육콘텐츠 개발과 헬스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 체육의 영역이 신체를 통한 교육, 스포츠경기를 넘어 시와 미디어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 미디어, 공학을 융합한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 제언한다. 이를 위해 역시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대학이 두 발을 묶고 발맞추어 이인삼각 달리기를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오징어게임에서와 같이 너무 급격하고 예상하지 못한 저자생존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혁명적인 기술발전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트렌드 분석을 통한 공간의 확대, 가치창출, 생태계 구축 그리고 이를 추진하고 관리 운영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모듈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그러므로 이제 오징어게임 시대에 이인삼각 달리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감과 감동 그리고 협력적 출발을 위한 소통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sup>4</sup> 공유경제 인터넷넷, 임재영 공유경제 기자, 2019. 08. 20.

MODULE

# 스포츠 동작을 분석하는 이유와 방법



글\_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진영완

## I. 서론

현대 사회는 산업의 발달에 따라 자동화되고 기계화된 편리한 생활로 인해 신체활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신체의 움직임이 부족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신체기관의 기능도 저하된다. 기능 저하는 노화의 진행을 당길 뿐 아니라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현대인들은 규칙적인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체력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즐기는 생활 스포츠뿐만 아니라 전문선수들이 참가하는 스포츠활동에도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한다. 이런 스포츠 기술들을 과학적인 동작분석을 통하여 과학적 지도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스포츠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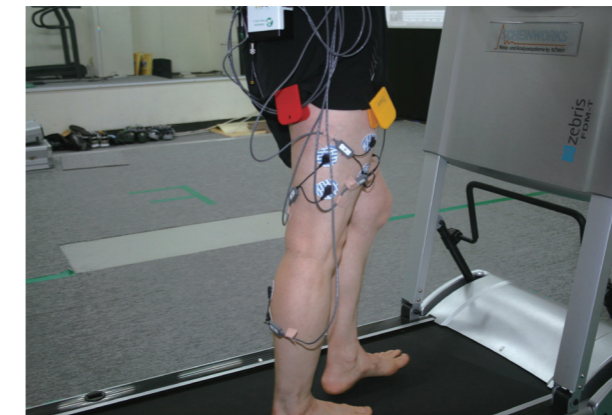
# Sports Behavior Analysis



## II. 동작분석 방법

### 1. 질적분석 방법과 양적분석 방법

동작분석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는 질적분석 방법(Qualitative Method)이고, 다른 하나는 양적분석 방법(Quantitative Method)이다. 질적분석 방법은 카메라나 비디오가 쓰이기도 하나 주로 눈으로 동작을 관찰하여 주관적 평가를 하는 것이다. 양적분석 방법은 고속카메라를 통하여 동작을 영상으로 분석하는 방법, 포스 플랫폼(Force Platform)을 통하여 걷거나 달릴 때 충격력, 회전력 등 지면반력을 통하여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근전도계(EMG, Electromyography)를 통하여 근육이 내는 힘을 측정하는 근전도 활성화분석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측정자료를 근거로 객관적 평가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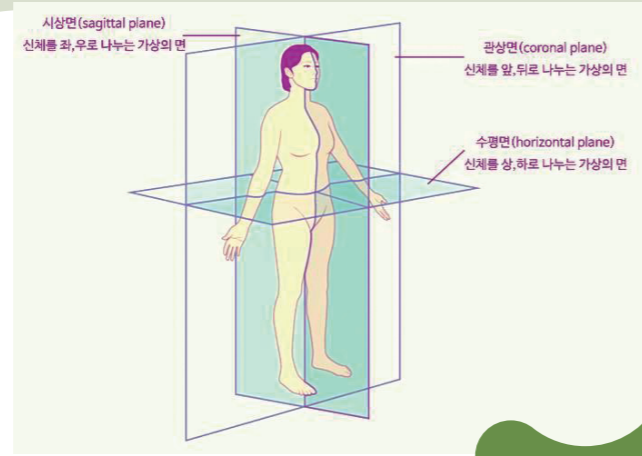
▲ 근전도 활성화 및 지면반력 분석

“ 동작분석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는 질적분석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양적분석 방법이다. ”

질적분석 방법은 주로 체육교사, 코치, 선수 또는 관중들에 의해 사용되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동작의 결과를 눈으로 본 후에 간단히 그 결과 또는 코칭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완전한 질적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관찰하는 것보다는 사진이나 비디오 또는 필름을 통하여 관찰하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동작을 자세히 거듭 볼 수 있어 정확하고, 눈으로 관찰하더라도 반복하여 여러 번 관찰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뿐만 아니라 동작을 몇 개의 국면으로 나눈 체계적인 관찰 순서를 만들어 이로부터 나온 결과를 평가한 후 결론을 얻어야 완전한 질적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양적분석 방법은 주로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같은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동작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알아본다는 가 새로운 기술을 설명한다든가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영상분석 방법, 지면반력분석 방법, 근전도분석 방법 등을 통하여 무게중심점의 위치, 수평속도와 가속도, 수직속도와 가속도, 선운동량, 각운동량,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그리고 각종 힘들을 찾아내고 이들 측정치를 근거로 통계적방법을 동원하여 목적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다.





▲ 3차원 영상분석 방법과 3개의 면 ▲

### 2. 2차원분석 방법과 3차원분석 방법

스포츠 동작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면(Plane)과 축(Axis)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면은 2차원적 평면을 의미한다. 스포츠 동작은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3개로 구성된 기준면(Reference Plane)에서의 동작들로 분할해서 설명하곤 한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동작은 어느 한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세 평면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동작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정 동작을 각 세 평면으로 분할해서 관찰할 경우 보다 수월하게 동작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질적분석을 할 때 종종 쓰이는 방법이지만 양적인 분석을 할 때도 세 평면에서 각각 분석하는 방법을 빈번히 사용한다.

3개의 기준면들은 시상면(Sagittal Plane), 관상면(Frontal Plane) 그리고 수평면(Horizontal Plane)으로 구성된다. 시상면은 인체를 좌우 질량이 서로 같도록 좌우로 나누는 면이다. 관상면은 인체를 앞뒤 질량이 서로 같도록 앞뒤로 나누는 면을 일컫는다. 수평면은 인체를 위아래 질량이 서로 같도록 위아래로 나눈다. 스포츠 동작을 예로 들어보면 손을 짚고 앞뒤로 구르기, 공중돌기 등은 시상면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손 짚고 옆으로 돌기 동작은 관상면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고 피겨스케이트의 스핀 동작은 수평면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스포츠 동작은 모두 3차원 공간상에서 이루어 지지만 동작을 쉽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2차원 분석을 먼저 수행하게 된다.



### 3. 운동학(Kinematics) 분석 방법과 운동역학(Kinetics) 분석 방법

운동학은 시간경과에 따른 운동패턴 혹은 운동형식 즉 (각)변위, (각)속도, (각)가속도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스포츠 동작의 외형을 설명하는 운동학은 동작과 관련된 힘(Force)을 연구하는 운동역학과는 구별된다. 스포츠 동작을 수행할 때 동작의 면밀한 분석은 체육교사나 코치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스포츠 기술을 배울 때 운동학적 동작의 개선은 연습과정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환자가 부상당한 관절을 재활 치료하는 중에 재활치료 사나 임상 의는 정상적인 관절운동학에 기반하여 점진적인 회복을 돕게 된다. 운동학은 질적인 분석과 양적인 분석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축구의 킥 동작에 대한 운동학을 질적방법으로 묘사할 때 엉덩관절의 굽힘, 무릎관절의 폼, 발목관절의 바닥 쪽 굽힘을 포함하는 주요 관절들의 동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킥을 수행하는 사람의 기술수준을 설명하는 것이다.

운동역학적 분석 방법은 동작의 속도나 가속도 등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운동학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여 그 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운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인 힘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예를 들어 우사인볼트와 아사파 포웰의 100m 달리기의 구간별 속도와 가속도의 변화를 비교해 살펴보았지만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는 알 수 없었다. 운동역학은 이런 차이의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극복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연구한다.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비롯한 운동역학적 변인에 관해 공부하는 학문이다.

### III. 결론

위와 같이 여러 분야로 스포츠 동작을 분석하는 이유는 체육교사나 코치 등 스포츠 지도자들이 과거의 단순한 경험과 지식을 벗어나 스포츠 동작에 수학, 물리학, 해부학, 운동역학 그리고 컴퓨터과학 등을 접목하여 동작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지도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상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 구민들과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 건강한 100세 시대로의 길을 열다

### 강서구체육회

넓고 평평한 지형과 민물과 바닷물이 마주하는 비옥하고 수려한 천혜 환경을 품고 있는 강서구체육회의 체육시설은 구민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간을 넘어 소통의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의 특징점을 고스란히 담아낸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대회를 운영하며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구체육회를 들여다보자.

### 생활밀착형 체육, 건강한 100세 시대로!

활기찬 스포츠 문화 정착과 체육동호인 활성화, 선진체육회로의 도약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영위'라는 슬로건으로 15만여 명에 이르는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강서구체육회. 김재업 민선 초대회장과 9명의 부회장 및 34명의 이사, 정현교 사무국장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8인의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현장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종 복지회관과 문화회관 및 지역 야외 체육시설은 물론 유치원, 초·중학교, 지역아동시설이나 경로당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보급하며, 다양한 종목별 협회와 동호인 활동, 협회장·구청장배 대회도 주축·주관한다.

강서구체육회는 28개 종목단체(정회원 20종목, 준회원 5종목, 인정단체 3종목)로 구성되어 있으며 184개 클럽에서 6천여 명의 구민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명지다목적인조잔디운동장을 비롯해 신호체육공원의 축구장, 파크골프장 9홀 4면, 대저생태공원의 45홀의 파크골프장, 2면의 야구장, 4면의 풋살장, 3면의 족구장, 8면의 테니스장, 4면의 인조잔디축구장 등 강서구의 전반적인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 종목단체의 운영·지원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회 참가는 단순한 교육에서 벗어나 대회라는 하나의 목표를 통해 체육의 가치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각종 대회의 메달, 순위 이상의 가치

강서구체육회의 많은 체육시설과 적극적인 지원·관리 덕에 파크골프, 축구, 생활체조 분야는 부산 및 전국의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는 주력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2019 부산광역시장애 슈퍼컵 그라운드골프대회 3위, 제30회 부산시민체육대회 화합상 1위,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체조부분 어르신부 종합 2위를 차지한 것에 이어 2021년에는 제16회 어르신체육대회 그라운드골프 장려상,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 그라운드골프 장려상 및 파크골프 3위를 기록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5회 부산광역시 체조협회장배대회에서는 생활건강체조분야(노년부)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강서구 카누직장운동경기부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은메달, 2018년과 2019년 제36-37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종합 1위, 2018년과 2019년 제99-100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1위를 거머쥐며 강서구체육회를 빛냈다.

특히 생활체조는 2009년과 2012년에 이어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이후 부산광역시 대표팀으로 선정돼 '부산광역시-일본 사가현 생활체조 국제교류 대회'에 참가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강서구체육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지도한 팀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하여 입상하는 일이 드물기에 이러한 성과들은 순위 기록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강서구체육회에서 15년이라는 시간동안 부산 및 전국 생활체조 부분에서 수상하고 2019년도 부산광역시 어르신 체육대회에서 90세의 연세로 최고령상을 수상한 이두남 회원은 생활체육을 향한 열정으로 많은 동호인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다. 대회 참가는 단순한 교육에서 벗어나 대회라는 하나의 목표를 통해 체육의 가치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다채로운 야외 프로그램과 우수한 지도력

강서구체육회 하면 우수한 야외 프로그램들을 빼놓을 수 없다. 강서구의 자랑인 30리 벚꽃길을 따라 진행되는 강서낙동강변30리 벚꽃축제 프로그램과 7천여 명의 강서구 내 경로당 회원이 참여하는 노인운동회 등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행사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의 자연과 어우러진 대저수문생태공원의 그라운드골프 수업, 명지75광장의 게이트볼 수업, 강동야외체육시설의 걷기 수업, 명지다목적운동장의 국학기공 수업, 명지강변산책로의 생활체조 수업, 명지풋살장의 여성풋살교실도 인기다. 최근 주력하고 있는 여성생활체육교실사업 여성풋살교실은 여성 축구 종목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목표로 기초체력 및 기본기, 전술 연습 등의 전문 훈련을 무료지도하고 상해보험 가입과 용품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위축되기도 했지만 야외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콘텐츠 및 비대면 교실 등으로 구민들의 지속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들 역시 각자 직무능력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 종목별 교수지도법과 실기능력 향상 등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고 생활스포츠지도자 및 노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담당 종목협회의 사단법인 자격증 등을 추가 취득하며 현장수업에도 대비하고 있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 김재업 회장 인터뷰 (MINI INTERVIEW)

저뿐만 아니라 여러 임원진, 지도자와 봉사정신으로 힘을 합쳐 내실 있는 강서구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와 체력증진을 위해 협력관계를 확장시키고 진취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체험·캠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체육 동호인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더 많은 사회적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생활 밀착형 체육으로 구민 모두가 100세 시대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도자 인터뷰(MINI INTERVIEW)



#### ● 김은경 지도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16년째 강서구체육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의 질환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 김서현 지도자(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일반생활체육지도자로서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게 되는데, 재미있었다며 내일 또 오라고 안아주는 유아들에게 힘을 얻곤 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친구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더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 노수미 지도자(일반생활체육지도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구한 마음으로 현장지도에 임하며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도 나이나 성별 구분 없이 다양한 장소에 생활체육을 보급하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현장 지도 활동이 활발해지기를 고대합니다.

#### ● 박대광 지도자(일반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운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특히 여성풋살교실에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지도자로서 큰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마스크 없이 필드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만날 날이 기다려집니다!

#### ● 박보경 지도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현장지도 2개월 차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술제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대에 올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몽클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구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배수영 지도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들의 생활체조 수업 당시 미리 매트를 깔아 놓고 저를 기다리시는 모습에 놀라고 감동 받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운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힘쓰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 ● 여태근 지도자(일반생활체육지도자)

많은 회원분들이 동호회를 처음 접하고 친선대회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삶의 활력이 되었다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의 폭이 줄어들어 안타깝게, 하루빨리 함께 즐겁게 땀 흘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 이현정 지도자(일반생활체육지도자)

체육을 싫어해 앉아서 책을 보던 친구가 체육에 흥미가 생겨 체육이 제일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생활체육을 강서구 지역주민들께 보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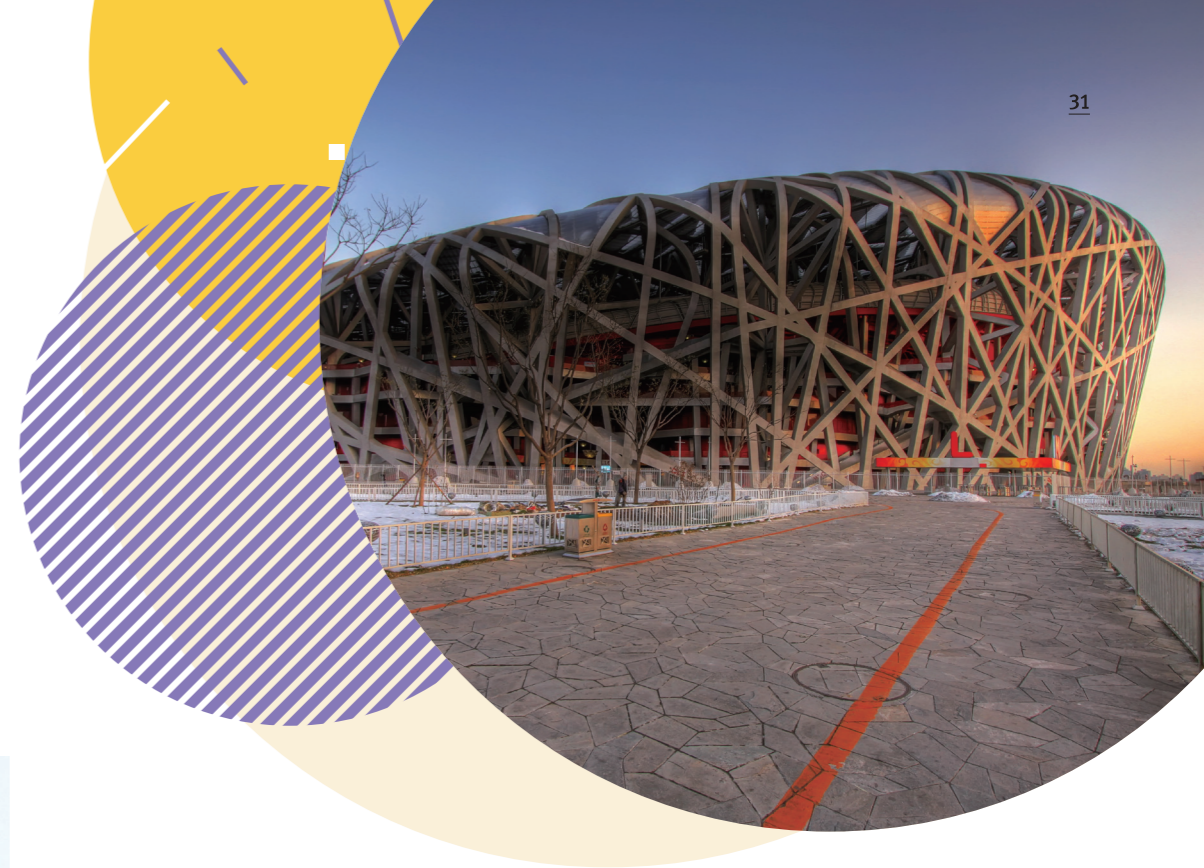
(\*가나다순 배열)



ISSUE & FOCUS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경기대회, 외교적 보이콧 딛고 성공적 개최로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경기대회 이후 중국에서 14년 만에 국제대회인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린다. 이로써 베이징은 하계 및 동계올림픽경기대회를 모두 개최한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성과 외교적 보이콧 논란 속에 치러질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알아보자.



### 코로나19에 따라 입장권 공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경기대회의 공식 슬로건은 '함께하는 미래(Together for a Shared Future)'이다. 이는 인류가 미래를 공유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올림픽의 힘을 상징한다. 특히 코로나19로 겪었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세계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또한 무관중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2월 4일(금)부터 2월 20일(일)까지로 일정이 확정되었고 종목 또한 15개 종목, 109개의 세부종목으로 결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이티가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이며, 북한은 참가가 금지됐다. 지난 도쿄 올림픽경기대회에 일반적으로 불참해 올림픽 현장 위반에 대한 징계로 2022년 말까지 활동 자격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입장권은 중국 본토에 거주하고, 코로나19 대비책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판매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비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조건과 입장권 구매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되면 적절한 시기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 베이징, 옌칭, 장자커우 3개 지역에서 진행

2022년 2월 4일(금)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경기대회는 막을 올린다. 경기는 기존 경기장과 새롭게 건설된 시설에서 진행되며,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경기장 중 몇몇은 다시 사용된다.

개최지는 3개의 지구로 베이징, 옌칭, 장자커우이다. 베이징은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해 빙상종목의 무대가 될 예정이다. 베이징 국립 경기장은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개·폐막식뿐만 아니라 육상 경기 등을 개최했으며 독특한 디자인으로 버드 네스트(새 둥지)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외에도 박스형 디자인으로 워터 큐브라는 별명을 얻은 국립 아쿠아틱 센터, 세계 최초의 상설 빅에어 경기장인 빅에어 쇼우강,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펼쳐질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오벌) 등이 있다.

베이징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75km 떨어진 옌칭은 온천과 국립공원 등으로 구성된 베이징 외곽의 산악지역이다. 이곳에서는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과 같은 썰매 종목과 알파인 스키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옌칭에 있는 국립 슬라이딩 센터는 중국의 첫 번째 슬라이딩 트랙이자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조성된 트랙으로 2,000명의 관중 수용 및 입석은 8,000석까지 확장할 수 있다.



장자커우는 베이징에서 북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곳으로 프리스타일, 크로스컨트리, 스키 점프, 노르딕 복합, 바이애슬론을 포함한 스키와 스노보드 경기의 대부분이 펼쳐진다. 국립 바이애슬론 센터, 국립 스키점프 센터, 국립 크로스컨트리 센터 등이 있다.

3개의 지구에는 동계올림픽경기대회와 패럴림픽경기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팀 관계자들의 숙박을 책임질 선수촌이 있다.

### 미국을 시작으로 잇따른 외교적 보이콧

대회의 막이 오르기도 전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경기대회는 잇따르는 '외교적 보이콧'으로 논란이 되었다. 외교적 보이콧은 올림픽경기대회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막식에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경기대회와 패럴림픽경기대회에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을 감안해 어떤 외교적·공식적 대표단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결정에 중국은 반드시 반격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영국, 캐나다, 호주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선수단까지 파견하지 않는 '완전 보이콧'은 지양한다면서도 장관이나 관료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고, 캐나다는 중국의 인권 상황을 극도로 우려한다며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했다. 호주는 중국 정부가 인권 탄압과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 등 여러 문제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동참했다.

외교적 보이콧이 확산되자 많은 국가들이 고민에 빠지며 검토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경기대회가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에 이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남북 관계에 기여하길 희망하고 있다.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경기대회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선수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길 기원한다.

출처: 국제올림픽위원회(<https://olympics.com>), 대한체육회 2021 국제스포츠 주요 동향 24회차(2021.12.04.~2021.12.17.), 대한체육회 <스포츠원> 2021년 12월호, 생생 스포츠-이슈체크 ①, 부산일보 이현정 기자, 2021.12.07. 기사 <미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공식화 '갈등 고조'>

BEIJING 2022

# 부산광역시체육회 호랑이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리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용맹한 흑호랑이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려 나갈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임직원들과 함께라면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지난날은 뒤로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희망찬 내일을 맞이해보자.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사무처 | 상임부회장  
박가서



새해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또 다른 발전의 기회로 삼아 체육인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체육환경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희망찬 임인년 새해에는 모두 행복하시고 가정마다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영기획본부 | 본부장  
성기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였기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이번 해에도 부산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함께 화이팅합니다.

총무부 | 과장  
설윤아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으로 각종 대회와 대면회의 개최를 기대합니다. 2022년 임인년에는 용맹한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부 | 대리  
이진환



2022년에는 회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산국제대회기념전시관의 콘텐츠를 보강해 많은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총무부 | 주임  
황천영



부산광역시체육회 총무부에서 회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2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서둘러 진행해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흑호랑이해 임인년에는 모두 호랑이처럼 기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처 | 사무처장  
김동준



작지만 큰 기적을 이뤄낸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 맞이하는 임인년에는 도전과 혁신으로 체육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부 | 부장  
서원택



새해에는 우리 모두 호(虎)호(互)호(好) 웃는 한 해가 될 겁니다. 虎(범 호) 호랑이 해에는 互(서로 호) 서로 같이 다함께 好(좋은 호) 좋아지는 멋진 한 해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총무부 | 대리  
김인근



2022년도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며 2년간 위축된 경제, 사회, 체육, 문화가 다시 꽃피우는 그날을 바라면서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총무부 | 주임  
박찬우



민선체육회 출범과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지방체육회가 더욱 풍성하고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조항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총무부 | 주임  
김민지



호랑이 기운을 듬뿍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에는 더욱 활기차고 모두가 빛나는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산체육 파이팅!!!

체 육 회 사 무 처

총무부 | 담당  
박혜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체감한 한 해였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호랑이의 기상처럼 힘찬 임인년 되세요!

총무부 | 담당  
구자을



지난해 모두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마케팅기획부 | 부장  
문찬식



봄을 기다리듯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 하지 않는 '2022 검은 범'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용기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건강과 건승 그리고 만사형통을 기원드립니다.

마케팅기획부 | 주임  
김성무



'해양수도 부산! 건강한 부산!'의 명성에 걸맞는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미래의 부산 중심이 될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 시설! 해양레포츠콤플렉스! 수탁운영을 통하여 부산체육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기획부 | 주임  
하나근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변화, 도전, 시작이라는 단어만큼 말이죠. 2022년 임인년 한 해 새로운 변화를 망설이지 말고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위해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케팅기획부 | 사원  
김지환



부산체육 발간과 홈페이지·SNS 운영을 맡고 있는데, 다가올 2022년 도에는 좀 더 높은 퀄리티의 <부산체육>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찬 구성으로 독자분들께 좋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업로드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체육진흥본부 | 본부장  
정종욱



2022년 임인년 모든 부산체육 선수들이 호랑이 기운을 가득 받아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여 우리 부산체육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 또 응원합니다!!!

경기운영부(학교클럽부겸직) | 부장  
박주현



2022년 임인년은 검정색에 해당하는 천간 '임壬'과 호랑이에 해당하는 지지 '인寅'이 만나는 '검은 호랑이해'입니다. 부산 체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모두 함께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같이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고 소갈이 신중하게 행동하다)'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는 자세로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경기운영부 | 과장  
최상욱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체육이 침해된 기간이었습니다. 2022년 임인년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도 종식되고 전문체육의 꽃이라 불리는 전국체육대회, 동계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체육 분야가 번성할 수 있는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체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운영부 | 대리  
공병철



지난 2년간 전국체육대회가 열리지 않아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모두 몸이 근질근질 하실 텐데... 올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프런트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하이팅!!!

경기운영부 | 담당  
송성윤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전국체육대회 지원을 맡고 있는 만큼 2020 도쿄 올림픽경기대회에 이어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연속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일반부·대학부 선수들도 올해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운영부 | 담당  
반종영



2022년 임인년에도 부산체육의 발전을 위해 구슬땀 흘리시는 모든 체육인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학교클럽부 | 대리  
이민경



체육회와 함께 걸은 날의 발자국 수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에 희망과 기대가 부푸는 한 해입니다. 더 멀리 더 높게 뛰기 위해서는 몸을 더 움츠려야 하듯, 지난해 코로나19로 펼치지 못했던 부산체육의 힘을 2022년에는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산체육 파이팅~!

학교클럽부 | 주임  
이진호



2022년도에도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부산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클럽부 | 담당  
윤현호



2022년에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이루고자 하는 일,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습니다.

체육지원본부 | 본부장  
이기진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운은 자신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며,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 합니다. 자신의 행운과 기회를 믿고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2022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단체운영부 | 부장  
장현찬



우리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단체(종목, 구·군체육회)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우리시체육회 회원단체가 전국 최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단체운영부 | 과장  
윤미숙



다년간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수행한 회계 업무의 노하우를 종목단체 운영에 접목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회원단체운영부 | 대리  
김민영



우리 회원단체가 부산광역시체육회 운영방침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힘쓰고 대한체육회에 시·도 사정을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단체운영부 | 대리  
여찬우



구·군체육회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시 체육회에 비해 열악한 구·군체육회의 행정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구·군체육회의 구성원인 지도자들의 근무조건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정체육부 | 부장  
배성봉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새해의 여러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우리 체육회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든 하지 않든 시간은 갑니다. 그렇다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체육부 | 과장  
공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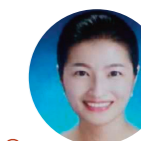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맙시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일은 이제 뒤로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된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되길 바랍니다.

공정체육부 | 대리  
하창근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정체육부 | 담당  
김도희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2022년 올 한 해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좋은 결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실내빙상장 | 센터장  
정석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결국에는 이겨냈습니다. 2022년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부산체육인이 앞장서서 만들어 갑시다.

부산실내빙상장 | 담당  
최혜림



도전의 결과는 성공 아니면 성장! 2022년에는 계획하신 일과 주저하셨던 일 모두 호랑이처럼 용감하게 도전하시고 행복과 건강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 열정의 코트 위에서 펼치는 한 판 승부 농구의 역사를 말하다



농구는 일상적이면서도 친숙한 스포츠다.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에서 농구를 즐기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각종 드라마와 영화, 만화에서 주요 소재로 다룬다. 장소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농구의 역사와 용어에 대해 살펴본다.

# Basketball

## 네이스미스가 덕온락이란 놀이에서 착안해 만든 스포츠



대부분의 스포츠는 여러 종목들이 섞이면서 차차 자리 잡아가지만 농구는 탄생부터 발전까지 그 과정이 비교적 정확히 기록돼 있다. 농구를 창안한 제임스 네이스미스(James Naismith, 1861-1939)가 세상을 떠나고 2년 뒤 그의 저서 「농구, 기원과 발달(Basketball-its Origins and Development)」이 발간됐고 여기서 농구의 탄생 일화를 찾아볼 수 있다.

네이스미스는 미국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YMCA국제트레이닝스쿨에서 체육교육을 담당하던 중 체육국장으로부터 겨울동안 육상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는 어릴 때 했던 놀이 '덕온락(Duck on a Rock)'에서 영감을 얻어 농구를 만든다. 덕온락은 한 아이가 술래가 돼 바위 위에 있는 돌을 지키고 나머지 아이들이 다른 돌을 차례로 던져 바위 위의 돌을 떨어트리는 놀이다.

네이스미스는 양편으로 10피트 높이에 복숭아 바스켓 2개를 설치하고 각 팀 별로 9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농구를 만들었다. 돌 대신 축구공을 사용했는데 부상 위험이 없고 다루기 쉽기 때문이었다. 공(Ball)과 바구니(Basket)로 하는 경기인 만큼 그는 농구(Basketball)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1891년 네이스미스는 겨울 교지에 농구 규칙을 설명한 팸플릿을 만들었고 1892년 이를 정식 배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농구는 변화를 거듭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 초창기에 막혀있던 복숭아 바구니는 뺨 뚫렸고 1894년 이후에는 축구공에서 좀 더 크고 반발력이 좋은 농구공으로 대체됐다.

대부분의 구기 종목이 하얀색 공을 쓰는 것과 달리 농구에서 오렌지색을 택한 이유는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다. 농구는 여러 명의 선수가 바빠 움직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공에서 눈을 땔 수 없다. 그래서 빛을 반사하는 특징이 있는 하얀색을 피하고 코트(Court) 바닥과 비슷한 계열의 오렌지색 공을 써 눈의 피로도를 줄였다. 오렌지색 농구공을 처음 고안한 토니 힌클(1899-1992)은 새로운 색깔의 농구공을 개발하기 위해 농구공 제조사인 스팔딩사와 손을 잡았다. 힌클은 1965년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 Duck on a Rock



### Shot을 Shoot으로 알고 잘못 써 굳어버린 용어, 슛

슛(Shot)은 골대를 향해 공을 던지는 모든 동작을 말한다. 영문으로 'Shoot'이 아닌 'Shot'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샷이라고 발음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슛이라고 발음하면서 그렇게 굳어져 버렸다. 영어용어사전은 '쏜다'라는 의미를 가진 Shoot이고 고대 영어 '스세오탄(Sceotan)'에서 변형됐으며 고대 독일어 '스코이탄란(Skeutanan)'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한다.

미국 스포츠에서 슛은 원래 야구 용어로 투수가 던지는 역회전 구질의 변화구를 일컬었다. Shoot과 구별하는 단어로 Shot도 사용됐는데 야구 배트(Baseball Bat)에 강하게 맞아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볼을 의미했다. 국내 스포츠에서 슛은 축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에서 골을 넣기 위해 공을 차는 행위의 의미로 사용된다.

네이스미스가 제정한 최초의 농구 규칙에서 슛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고 20세기 들어 농구 규칙이 다양하게 개정되면서 샷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Shot을 Shoot으로 잘못 알고 사용했던 일본을 통해 농구 용어를 배운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도 이를 그대로 썼다. 1997년 프로농구가 출범하면서 영어 원어가 Shoot이 아닌 Shot임을 알게 됐지만 너무 오래 사용해 바로 잡기 어려웠다.

### Shot

### 공격권이 상대 팀에게 넘어가는 트래블링(Traveling)

영어 동사 트래블링(Traveling)은 '여행한다'는 의미 외에 '걸거나 움직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트래블링은 동사 트래블(Travel)에 진행형 'ing'가 합성된 말이다. 이 같은 뜻에서 착안해 농구에서는 공을 들고 세 걸음 이상 가는 것을 트래블링 또는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Traveling Violation)이라고 한다. 트래블링이 선언되면 공격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국내에서는 프로농구가 출범하기 전 트래블링 대신 워킹(Walking)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트래블링은 농구를 창안했을 때부터 있던 규칙이다. '선수는 공을 갖고 달릴 수 없다'라는 조항이 네이스미스가 만든 규칙에 있었으며 이후 규칙이 보완되면서 '공을 잡고 세 걸음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선수가 한쪽 발을 축으로 쓰는 피벗(Pivot)을 구사할 시 몸을 움직여 점프해 패스하거나 슛을 하는 것은 트래블링이 아니다. 하지만 착지할 때 공을 갖고 있다면 이는 두 번 스텝을 밟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트래블링이다. 트래블링에 대한 규제는 국제농구협회보다 전미농구협회(NBA)가 좀 더 관대해 현란한 발놀림이 이뤄지는 유로 스텝(Euro Step)이 NBA에서 인기를 끌게 됐다.

### Traveling



### 덩크슛에서 슬램덩크로 바뀌며 인기 끈 NBA의 꽃

농구의 묘미 중 하나인 슬램덩크(Slam Dunk)는 점프력이 좋고 키도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하다. 슬램덩크는 본래 '덩크슛(Dunk Shot)'으로 불렸다. '세계 달는다'는 의미의 '슬램(Slam)'과 '빠트린다'는 의미의 '덩크(Dunk)'의 합성어인 슬램덩크는 전 LA레이커스(LAKERS) 아나운서 칩 헨(Chick Hearn)이 유행시키면서 덩크슛을 대체하는 말이 됐다. 슬램덩크는 1936년 처음 등장했다. 텍사스 출신 2미터 장신의 조 포텐베리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처음 시도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미국대학농구(NCAA)에서는 1967년부터 1976년까지 선수들의 부상 우려 때문에 덩크슛을 금지했다.

슬램덩크는 동작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공을 머리 위에서 한 손 또는 양손으로 내리 꽂는 것을 '더블 클러치(Double Clutch)', 머리 뒤에서 두 손으로 내리 꽂는 것은 '토마호크(Tomahawk)'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1997년 한국프로농구가 출범하면서 슬램덩크를 구사하는 국내 선수가 늘었다.

### Slam Dunk

- 출처: 마니아리포트, 김학수, <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 용어 산책> 시리즈
- 2021. 05. 22. <농구에서 영어 '샷(Shot)'을 슛(Shoot)'이라고 말하게 된 까닭은>
- 2021. 05. 25. <왜 농구공은 오렌지(Orange)색일까>
- 2021. 05. 26. <초창기 농구에서 축구공을 사용했던 까닭>
- 2021. 07. 02. <여행을 의미하는 트래블링(Traveling)이 어떻게 반칙용어로 쓰이게 된 것일까>

“ 국내에서는 1997년 한국프로농구가 출범하면서 슬램덩크를 구사하는 국내 선수가 늘었다. ”



# 성장기 운동선수 충분한 에너지 섭취는 필수!

운동선수는 고강도의 훈련으로 많은 열량과 체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선수들은 훈련과 성장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양 섭취가 필수적이다. 바른 식생활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어린 선수들의 성장 정도와 운동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과 영양관리가 필요하다.



성장기 운동 능력,  
균형 잡힌 식사부터



성장기에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지 못하면 활동이나 발육이 억제된다. 성장기 운동선수는 훈련과 시합 등 열량 소비가 크기 때문에 연령과 성별, 체중과 활동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해야 적정체중을 유지하며 성장발달할 수 있다.

연령이 같아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준의 영양 섭취가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선수의 개별적인 성장발달과 훈련시간, 훈련강도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효과적인 영양관리가 가능하다.

운동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영양관리의 첫걸음은 균형 잡힌 식사다.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류, 유지·당류 식품을 골고루 적당량 먹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장기인 어린이·청소년 선수들은 단백질 식품과 우유, 유제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에너지 대사와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 채소와 과일 섭취도 필요하다.

아침식사는 밤에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오후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식사 외에 영양 밀도가 높은 간식을 먹어 영양소와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것도 좋다. 훈련 중의 탄수화물 섭취는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단백질의 섭취는 근육 발달을 위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의 역할을 한다. 장시간 운동할 경우에는 고당질 간식이나 과일 주스 등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양질의 탄수화물,  
단백질, 필수지방산,  
칼슘 섭취**



어린이·청소년 운동선수는 긴 운동시간에도 수행능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운동 전에는 혈당 수치를 천천히 높이는 저당식품을 먹어 운동하는 동안 탄수화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훈련 직후나 경기 직후에는 고당지수 식품을 섭취해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좋다. 긴 시간 운동할 경우에는 운동 중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성장기는 신체 발육과 근육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특히 성장기 운동선수는 평균적인 경우보다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총 단백질의 40%를 고기나 달걀 등의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콩이나 두부, 우유 및 유제품 섭취도 권한다.

필수지방산에 의한 성장 촉진 역시 중요하다. 양질의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에너지원이 부족해 성장과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호르몬 생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불포화지방산은 세포 구성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성장기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생선이나 식물성 기름, 견과류, 아보카도 등으로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트랜스지방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며 체중 증가로 경기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마가린, 고기 기름, 과자 등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칼슘은 뼈의 건강과 근육의 수축 등에 필요하다. 성장기에는 골격 발달을 위해 많은 칼슘이 필요하지만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유제품, 멸치 등 뼈째 먹는 생선, 깨, 깻잎, 김, 미역, 브로콜리 등을 식사와 간식으로 섭취하면 좋다.



“  
수분은  
체온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 영양소나  
노폐물 운반에도  
필요한 중요한 요소다.  
”

# Water Intake

## 수분 섭취는 기본 중의 기본!



수분은 체온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 영양소나 노폐물 운반에도 필요한 중요한 요소다. 수분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유산소 운동 능력과 정신력이 저하된다. 운동 중의 수분 섭취는 탈수 예방은 물론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운동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어린 선수들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훈련 중과 훈련 전후로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운동을 할 경우에는 갈증을 둔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운동 시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권한다.

## 수분 섭취 꿀팁!



- 훈련 장소에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준비한다.
- 훈련 중간 휴식시간과 훈련이 끝난 후 등 코치의 지도하에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 충분히 섭취한다.
- 고온, 고강도 운동 시에는 더욱 많은 수분을 섭취한다.
- 물 이외에도 과일이나 채소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 정해진 아침시간에 소변 색과 체중을 측정하고 수분 부족 정도를 파악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물을 충분히 섭취할 경우에는 소변이 아주 옅은 노란색을 띄지만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진한 노란색, 탈수가 심할 경우에는 오렌지색, 고동색, 녹색 등을 띈다.)



\*본 페이지는 부산의 체육 관련학과 대학원의 교육을 시민 및 체육인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인재가 되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체육학과와 스포츠재활학과는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 건강과 행복의 시대, 사회체육지도자 양성

◆ **학과안내** | 2021년부터 스포츠산업학부에서 사회체육학과로 새롭게 변경되었으며 생활 및 전문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40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학부와 대학원생을 통틀어 4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명실상부한 체육대학으로서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 **교육목표** | 가슴엔 체육을! 두 눈은 세계로! 글로벌 사회체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과정과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지도한다. 대학원에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등 한 단계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지도도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 **교육과정** |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이론과 자격 종목에 해당하는 다양한 실기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기시험 과목인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등을 배우며 자격종목인 58개 종목 중 학생 수요자 중심 종목과 전략적 육성 종목을 교육한다.

◆ **진로 및 취업** | 체육교육 전문가, 스포츠지도 전문가, 스포츠교육 행정가, 프로스포츠구단, 트레이너 및 사무직, 스포츠센터 행정 기획, 스포츠이벤트 기획자, 스포츠팀 코치 및 감독, 협회 종목별 지도자, 스포츠경기분석관, 운동처방사, 스포츠심리상담사, 경기 심판원, 공무원(경찰, 소방)으로 취업 및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 글로벌 인재중심 스포츠재활 전문인력 양성

◆ **학과안내** | 스포츠재활학과는 기존의 운동건강학과와 스포츠의학과를 더욱 특성화·전문화하여 스포츠 선수들의 전반적인 운동 손상 관리뿐 아니라 웰니스(Wellness) 문화의 정착을 위한 건강 증진과 전문 체육, 건강산업 분야, 피트니스(Fitness), 레저 활동으로 발생하는 근 골격계 손상 예방,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 수요의 급증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강 운동관리사 및 선수트레이너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이론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현장 실무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 **교육목표** | 스포츠재활학과는 사랑, 존중, 가치로 '사람'을 존중하는 글로벌 인재 중심의 스포츠재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실기 중심의 수업과 전문실습 장비를 갖춘 실습실을 통해 전문적인 인체 구조 및 기능을 학습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스포츠재활 인재,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 **교육과정** | 스포츠재활에 필요한 기초인체해부학, 운동생리학, 스포츠 손상학과 상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정운동학, 대체의학 등의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다. 또 3, 4학년 때는 퍼스널 트레이닝론, 현장실습 세미나 등으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어 졸업 후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형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2학년 하계-동계 방학 기간에는 특별 영어 해외집중연수 과정을 운영해 국제적인 스포츠재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진로 및 취업** | 아마추어 및 프로팀 스포츠재활트레이너, 피트니스센터 PT 분야, 운동처방사, 트레이너, 지역 보건소, 병원(임상운동사), 스포츠 과학연구소 연구원, 국가기관의 건강운동관리 분야 등이 있다.

## 2022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신입생 모집 안내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체육학과와 스포츠재활학과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우수한 교수진과 현장 중심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교육할 것이다.

### 1.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학과	전형	지원자격	선발인원
사회체육학과	실기, 실적위주/[가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5명
스포츠재활학과	실기, 실적위주/[가군]		3명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2. 전형방법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수능	실기	총점
반영비율	40%	60%	100%
점수	400점	600점	1,000점

### 3.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유형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실기/실적 위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 1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성적(등급) - 2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성적(등급) - 3순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성적(등급) ※동점자 선발 우선순위까지 동일한 경우 동점자는 모두 선발함

※전 모집단위 수능 최저 학력기준 없음

### 4. 실기고사

군	모집단위	일자	실기종목	평가방법	배점	환산점수
[가군]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2022.01.13.(목)	선택 (2종목) 100m 구간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Z자 달리기 메디신볼 던지기	2종목에 대한 실기 측정	종목별 300점	최고: 600점 최저: 420점

- 100m 구간달리기 선택 학생은 기상악화 상황에 대비하여 원서접수 시 대체 종목 선택

(대체 종목: 제자리 멀리뛰기, Z자 달리기, 메디신볼 던지기)

- 실기고사 안내: 장소, 실기시간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2022.01.10.(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조회(<https://enter.bufs.ac.kr>)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소식을 전하다

제1기 부산광역시 스포츠 기자단 모집



SPORTS NEWS

부산시민들에게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현장 소식을 전달할 스포츠 기자단 모집이 시작됐다. 부산체육에 관심이 있고,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

대학생과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

스포츠 기자단은 글쓰기와 사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대학생,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 이내이며, 신청 현황 및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모집은 지난 1월 3일(월)부터 오는 2월 4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활동기간은 12월 말까지이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2점(취재기사, SNS 활동 사례 등), 증빙서류이며 담당자 E-mail(nkha0314@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내부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발표는 오는 2월 11일(금)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한다. 세부 내용은 부산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와 문의(마케팅기획부 하나근 주임, 051-500-79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활동내용 및 혜택

활동내용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광역시체육회 체육행사(대회, 행사) 취재 및 홍보</li> <li>- '22년 부산광역시체육회 대회 및 행사에 대한 현장 취재</li> <li>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 전문체육 기획 취재를 통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li> <li>- 부산지역 체육시설, 전문체육팀, 동호인에 대한 현장 기획 취재</li> <li>기사작성, 카드뉴스(인스타그램, 블로그 형식) 등 월별 콘텐츠 제작을 통해 부산체육 홍보</li> <li>- SNS 등 온라인 매체에 콘텐츠를 등록하여 온라인 홍보 활동 실시</li> <li>- 일반 기사작성은 A4 2장(글자 13pt, 행간 160%, 좌우 여백 20mm)</li> <li>- 카드 뉴스작성은 인터넷 환경(블로그, 인스타그램)에 맞게 10장 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취재를 통해 작성한 원고가 채택되어 게재 시 원고료 지원</li> <li>- 일반기사: 5만원/카드기사(일러스트 및 편집작업 포함): 10만원</li> <li>활동 물품 지급: 명함, 수첩, 기자신분증, B-1 배지</li> <li>연말 우수기자에 대한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표창</li> <li>사진 촬영 및 원고 작성에 필요한 교육 실시</li> <li>생활체육 관련 행사 및 체육진흥세미나 등 참여 기회 제공</li> </ul>



취재와 홍보 등 활발한 활동 기대

콘텐츠(글쓰기와 UCC 등) 제작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개인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활발하게 운영, 각종 기자단이나 서포터즈 활동 경력이 있으면 우대한다. 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등 편집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면 도움이 된다.

스포츠 기자단에 선정되면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해 취재 및 홍보를 진행하며, 기사 작성 및 카드뉴스(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형식) 등의 월별 콘텐츠를 제작한다.

스포츠 기자단에게는 명함과 신분증 등 활동 물품을 지급하며 현장 취재 원고가 채택되어 게재되면 원고료를 지원한다. 그리고 사진 촬영 및 원고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생활체육 관련 행사나 체육진흥세미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우수기자를 선정해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표창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체육의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는 매월 다양한 행사 및 대회를 추진한다. 또한 동호회 활성화 및 꿈나무 선수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 기자단이 현장을 직접 취재해 부산시민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소식을 전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사 홍보를 통해 부산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부산시민들이 바라본 스포츠현장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스포츠 기자단은 활동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폭넓게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스포츠 기자 양성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경험을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는 만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김윤태 북구국민센터장 퇴임 기념식 열어



## SPORTS NEWS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2월 30일(목)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윤태 북구국민센터장의 퇴임 기념식을 가졌다.

김윤태 북구국민센터장은 퇴임사에서 “초대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소통과 협치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제 체육회를 떠나면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체육인으로서 부산체육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박가서 부회장은 “김윤태 북구국민센터장은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으로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탁월한 행정력으로 직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며 퇴직에 대한 축하와 기쁜 마음을 전했다.

김윤태 북구국민센터장이 재임 기간 동안 보여준 열정과 헌신은 오래도록 임직원의 가슴속에 남아 귀감이 될 것이다.



#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 생활체육 우수운영사례 장려상 수상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2021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우수운영 사례' 공모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신경재, 오유진 지도자가 장려상(상금 50만 원)을 수상했다. 장애인생활체육지원 관련 모범적인 사업 성과 사례를 뽑는 자리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장려상을 받으며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신경재, 오유진 지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뜻깊은 일을 해갈 수 있어 보람됐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은 시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비대면 수업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을 통해 생활체육을 꼼꼼히 지도함으로써 많은 장애인이 가정에서도 스스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콘텐츠 관련 자세한 내용과 다양한 운동방법은 홈페이지(www.busad.or.kr, 정보센터→자료실→영상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출전

오는 2월 13일(일)부터 2월 16일(수)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이 개최된다. 부산선수단은 총 7개(바이애슬론, 빙상, 스노보드, 슬레이지하키, 알파인스키, 컬링, 크로스컨트리) 전 종목 출전을 목표로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산선수단은 그동안 수많은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에는 '제18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가 취소됐고, 훈련장은 폐쇄되는 등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수 개인별 맞춤 체력 훈련 및 영상 기술 훈련을 이어나갔다.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부산선수단의 선전을 기대하며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구·군체육회

## 동구체육회



### 동구 체육인의 밤 행사 진행

동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일(목) 협성빌딩에서 한 해 동안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체육회 임원, 내빈, 학교 관계자, 선수, 생활체육 동호인이 모여 동구 체육인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의 격려와 축하 속에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 구민건강걷기대회 및 구봉산 고유제

사전접수를 통해 동구 구민 99명(거리두기 3단계 행사인원)이 수정산 가족 체육공원 잔디마당에 모였다. 이날 행사는 동구체육회 남성학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이며 국민의례와 황현선 회장의 개회 선언 후 구민건강걷기대회와 구봉산 고유제는 시작됐다. 몸 풀기 체조를 마치고 수정산 가족 체육공원에서 출발해 치유숲길 1단계, 만수약수터, 구봉산 봉수대(도심 속 휴식공간 구봉산 숲길) 걷기 산행으로 봉수대에 도착해 고유제를 지냈다. 동구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었다.

## 영도구체육회



###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 테니스 우승컵 봉납식 및 격려금 전달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2월 16일(목) 영도구청 소회의실에서 테니스 우승컵 봉납식 및 격려금 전달식을 열었다. 지난 11월 27일(토)에 열린 '제32회 부산시민체육대회'는 스포원 실외테니스장 포함 6개 경기장에서 16개 구군 6개 종목의 선수 및 임원 1,2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도구테니스선수단이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영도구테니스협회는 부산시민체육대회 개최 후 처음으로 우승했다. 테니스 우승컵 봉납식에는 김철훈 영도구청장, 이강 영도구체육회장, 안천일 영도구체육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우승을 축하했다.

## 동래구체육회



### 2021년도 12월 동래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자체교육 개최

지난 12월 3일(금) 동래구 실내 인공 암벽장에서 사무국장, 생활체육 지도자, 초빙강사(레크리에이션) 등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도 동래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자체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육진욱 사무국장은 동래구체육회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에 있어 자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체육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니 비대면 수업, 영상 촬영을 활용해 구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동래구 체육 발전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해운대구체육회



### 우리구 건강걷기 챌린지, 어르신 건강걷기 챌린지 개최

지난 12월 6일(월), 8일(수), 10일(금) 해운대구체육회에서 우리구 건강걷기 챌린지와 어르신 건강걷기 챌린지를 개최했다. 행사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어르신들 150여 명이 3일 동안 참가했으며 장산 대천공원 내 등산로에서 진행됐다.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걷기 종목으로 잠시나마 겨울 추위를 잊을 수 있었으며 행사를 통해 건전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

## 금정구체육회



### 2021년 금정구청장기(테니스, 족구,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난 12월 5일(일) 신천테니스장 외 4곳에서 각종 금정구청장기 대회가 열렸다. 신천테니스장에서 제32회 금정구청장기 테니스대회, 금정족구장에서 제14회 금정구청장배 족구대회, 스포원 실내체육관에서 제28회 금정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가 개최됐다. 그동안 생활체육에 목말랐던 동호인들이 참가해 갈고닦은 실력과 기량을 발휘하는 시간이었다.

## 강서구체육회



### 2021년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및 기타 생활체육교실 종강식 진행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4일(금) 2021년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종강식을 국민체육센터 3층 다솜홀에서 진행했다. 2021년 10월 1일(금)부터 진행한 생활체육교실(여성생활체육교실) 5종목(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배드민턴, 배구, 여성풋살, 유소년축구)의 종강식에는 체육회장과 구청장이 참석했다. 2021년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은 강서구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어르신에게 체육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기초체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는 생활체조 프로그램이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5회 부산광역시체조협회장배 온라인 생활체조 경연대회에서 생활건강체조 분야 노년부 1위에 입상했다.

## 연제구체육회



### 연제구체육회 법인 출범식 및 2021년 체육인의 밤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12월 16일(목) 연제구청 구민홀에서 연제구체육회 법인 출범식 및 2021년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통보받은 경우로 참석자를 제한했고 예년 행사의 절반으로 참석자를 축소했다. 이날 행사에서 연제구체육회 김진근 회장은 부산광역시체육회로부터 공로패를 전달 받았다. 또한 한 해 동안 종목체육단체와 연제구 생활체육의 발전과 연제구를 빛낸 체육인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 사상구체육회



### 12월 사상구청장기 테니스·그라운드골프 대회 등 개최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12월 4일(토) 사상구청장기 테니스·그라운드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12월 11일(토)에는 사상구파크골프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단합을 도모했다. 대회는 참가자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됐다. 지난 3월부터 관내 13곳의 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체육활동지원(8곳) 및 백세운동교실(5곳) 또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체육센터

## 부산국민체육센터

### 01. 꿈나무체능단 겨울방학

꿈나무체능단이 지난 12월 27일(월)부터 1월 7일(금)까지 2주간 겨울방학을 실시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교육과정을 진행하여 소풍 및 현장 체험 등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가족과 다양한 실외 체험을 즐기며 뜻깊고 건강한 방학을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 북구국민체육센터



**운영기간**

- 이벤트 기간 : 2021. 11. 18.(목)부터 ~ 2022. 02. 28.(월)
- 대 상 : 2022학년도 대입수험생
- 프로그램 : 북구국민체육센터 모든 프로그램 이용가능
- 할 인 율 : 30%할인(중복할인 불가)

### 01. 2022학년도 대입수험생 30% 특별 할인 이벤트 실시

북구국민체육센터는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월)까지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인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영장, 헬스장 등 모든 프로그램의 이용료가 30% 할인 된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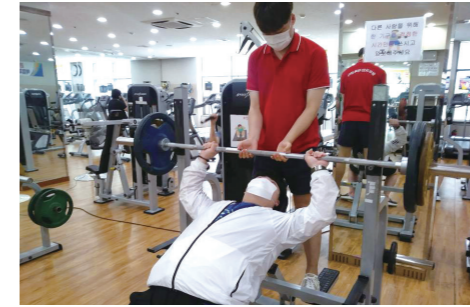
### 02. 2022년도 북구국민체육센터 소개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1년 총 면적 3,639.3m<sup>2</sup>(지상 4F)/1,616.7m<sup>2</sup>(주차장)로 개관했다. 2층 수영장에는 25m 5레인인 조성돼 있으며, 3층에는 헬스장과 전망대, 4층에는 A·B스튜디오로 요가 및 에어로빅 등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4층 옥상쉼터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즐겁고 편안한 문화공간의 환경이 조성돼 있다. 북구국민체육센터에는 유산소운동부터 근력운동까지 모두 가능한 종합체력단련장이 갖춰져 있으며, 개장시간은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다.

2022년 코로나19 완화 시에는 요가, K로빅, 스텝박스, 줌바, 발레핏, 필라테스, 키즈요가, 키즈 K팝 댄스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지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마련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활동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영도국민체육센터



### 01. 동주대학교 스포츠재활과 현장실습 실시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2월 27일(월)부터 1월 14일(금)까지 동주대학교 스포츠재활과 소속 학생 5명과 수영, 보디빌딩, 스쿼시 종목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영도국민체육센터 소속 지도자들은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관리 및 회원 지도법 등을 실습생에게 지도하여 미래 사회체육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 01. 방학 수영특강 프로그램 실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예년보다 적은 수의 반으로 개설했으며, 강사진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 01. 북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스케이트 교실 행사

부산실내빙상장은 지난 12월 22일(수) 북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참여수업 스케이트 교실’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실내 빙상장 안전교육 및 기초 스케이트 강습, 학부모 스케이트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 02.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근절 캠페인 실시

부산실내빙상장은 지난 12월 8일(수)부터 2주간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맞이해 부산북구경찰서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실내빙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 회원종목단체

##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 2021년 11월,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회장 이취임식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난 11월 26일(금)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이취임식에는 제2대 윤명옥 회장, 제3대 조원규 회장 이임과 제4대 오치환 회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협회 최소 임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백신접종 완료자만 참석했으며 그간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를 위해 노력·봉사한 분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공로패는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정병철 부회장, 이수영 감사, 백승렬 홍보부장과 구·군 협회 회장이자 부산진구배드민턴협회 오상현 회장이 수상했다. 감사패는 부산교통공사 신현무 상임감사,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처장이 수상했다. 전문체육 최우수 지도자상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준우승한 부산외국어대학교 정은화 감독이 수상했다.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오치환 회장은 이날 이임하는 제2대 윤명옥 회장의 업적에 감사를 전했으며, 제3대 조원규 회장에게는 코로나19로 취임식 없이 이임식만 하게 됐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오치환 회장은 2021년 경과보고로 고통 분담, 전문체육사업, 협회 정상화 노력을 보고했고 2022년 사업으로 클럽 정상화, 전문체육사업 확대, 대회 개최, 협회 정상화, 숙원사업 해결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 부산공공스포츠클럽

## 거점스포츠클럽

### 2021 성주군수기 바볼랏 주니어 로컬테니스대회 입상

지난 12월 4일(토)과 5일(일) 경상북도 성주군 생활체육공원에서 2021 성주군수기 바볼랏 주니어 로컬테니스대회가 개최됐다. 거점스포츠클럽에서 4개 부별에 총 6명이 출전해 여자 14세부 3위(김연우), 여자 12세부 3위(박소민), 여자 레드2부 2위(김서진)로 입상했다. 코로나19로 훈련이 어려웠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땀 흘려 연습한 학생들의 내년 성적이 기대된다.



### 테니스 전문선수반 동계 전지훈련 진행

테니스 전문선수반은 지난 12월 11일(토)부터 14일(화)까지 3박 4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테니스장에서 제주 아카데미팀과 함께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전지훈련으로 제주 아카데미팀과 교류전을 펼쳤으며 훈련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활동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됐고 앞으로 있을 대회 입상을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 영도구스포츠클럽

### 2021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개강

영도구스포츠클럽은 2021년 12월 27일(월)부터 2022년 1월 21일(금)까지 스쿼시·골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 The New E-Class 출시

## New E. New Attitude.

메르세데스-벤츠의 시작,  
스타자동차와 함께

Mercedes-Benz



스타자동차	전시장	해운대 051-709-630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우동)	서비스센터	해운대 051-797-961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우동)
	금정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금정	051-775-9811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산	052-701-0503 울산 남구 삼산로 83번길 (달동)	울산	052-705-7203 울산 남구 남중로 74번길 19(삼산동)
	기장	051-792-7474 부산 기장군 기장을 기장해안로 98	기장	051-792-7410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1047-10
	인종중고차	금정 051-775-9820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대표번호	1688-2369(benz)
	울산	052-701-0513 울산 남구 삼산로 83번길 (달동)	홈페이지	www.mbstar.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220 d 4M EX (배기량 1,950cc, 공차중량 1,900kg, 4륜구동), 복합연비: 13.2km/l (도시연비 12.2m/l, 고속도로연비: 14.7km/l), 등급: 3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4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프리미엄 피자

방문 포장 시

# 40% 할인

## 얼티밋

넘쳐 흐르는 치즈를  
포켓에 짹짹 담았다!

# 치즈포켓



진영푸드주식회사



# 케이블카 그 이상의 즐거움!

##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소원의 웅



모멘트 캡슐



VR 스카이스림



케이블카 뮤지엄



다이노 어드벤처



파티드(파규어) 갤러리



어린이왕자

### 문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오션 테마파크!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공룡과 사진찍고, 소원도 빌어보고, 짜릿한 VR체험까지!  
즐겁고 색다른 문화 콘텐츠가 눈 앞에 펼쳐집니다

문의 051) 247-9900

E이로운 S세상을 G그리다  
BNK 금융그룹



BNK부산은행은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언택트 릴레이 봉사,  
리플 환경운동 등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 BNK 부산은행이 세상을 응원하는 방법

조금 달라진 세상,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내일을 향한 발걸음에  
BNK부산은행이 먼저 찾아가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구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일에 앞장서며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